

‘국가안전처’ 전문가 중심 꾸려 대형재난 막아야

‘국민 안전’ 시스템이 없는 나라

⑤ 재난 대응 일원화가 답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 시간대별로 각 관련 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했고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점검한 뒤 그에 맞게 대책을 수립해야 앞으로 유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 대응 잘못으로 피해가 커진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세월호 참사 김·경합동수사본부 자문단에 참여한 목포해양대 이창희(53) 교수의 말이다. 특히 재난이 발생한 시점부터 구조작업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재난

대책본부만 10개... 현장 모르는 수장들 우왕좌왕 각 기관 역량 결집·상시 훈련 프로그램 도입 시급

를 책임지는 해양경찰, 해양수산부, 소방본부,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 군, 국무총리실 등의 대응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사고 직후 ‘전원 구조’라는 잘못된 보고가 언론에 알려지고, 정부가 이를 믿고 발표하면서 초기 신속한 구조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 이 ‘잘못된 보고’부터 정부 대책은 꼬여갔는데, 아직도 그 원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참사 당일인 오전 8시52분 고 최덕하 군의 신고가 접수된 뒤 전남소방본부 측은 목포해경과의 3차 통화를 신속하게 연결했다. 하지만 그 이후 인명구조 전문 기관인 소방방재청과 전남소방본부는

이후 지난 9시30분이 넘어서야 각 지방 소방본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초기 대응 실패 이후에도 정부 기관들은 잇박자 행보를 계속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본적인 탐색과 파악, 구조 통계수치부터 틀리면서 조조한 실종자 가족의 불신을 초래했다. 정부 각 부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각각의 대책본부를 꾸린 것도 ‘아마추어’적인 대응이었다.

침몰 직후 재난 담당 부처인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를 꾸렸다. 여기에 경기도와 도교육청, 안산시, 합동대책본부를 해양경찰청도 중앙구조본부를 차리는 등 10여 개의 ‘본부’가 우후죽순 들어섰다. 이들이 제각각 발표에 나서면서 초기 대응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 해양수산부 주도로 뒤늦게 설치됐지만, 역시 제대로 된 대응은 하지 못했다. 해양수산부는 대규모 해양재난사고 자체를 겪어본 적이 없었고, 이를 지원해야 할 안전행정부 등 부처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종자 가족이 안정을 취하고 구조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도 못했다. 사고 다음날인 17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 실종자 가족들이 요구한 뒤에서야 이러한 조치들은 이행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된 셈이다. 이후에도 잠수를 통한 수색 및 구조 과정에서도 해경이 독자적으로 군과 소방 인력의 참여를 통제하는 등 이해되지 않는 대응을 보였다.

전형적인 관료주의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장을 모르는 관료들이 대형 재난사고의 수습에 나서면서 전문성, 현실성,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이번 참사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사고 초기 골든 타임에 해양경찰만이 아니라 소방본부, 군, 민간 등이 모든 역량을 결집했다면 상황을 달라졌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같은 ‘했다더라’ 실종자 및 희생자 가족만이 아니라 온 국민의 가슴 속에 불신과 절망으로 남아 있다.

재난구조 일원화 및 전문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최근 세월호 참사와 관련 대책으로 ‘국가안전처 신설’ 카드를 내놓았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 등은 미심쩍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변경하고 그 산하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설했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전혀 제 기능을 못했듯 정부부처 내 ‘관료주의’가 여전히 뿌리깊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국가안전처가 관료가 아닌 전문가 중심으로 재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 초기에 각 기관의 역량을 집중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재난 상시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우려가 주목된다.

〈끝〉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실종 학생이 이젠 잃어버린 동생 같아요”



자원봉사자 광주출신 용미연씨

“실종된 건우네 가족과 열을 동안 함께 살며, 건우가 돌아오길 믿고 있어요! 집에서는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하는데 기다림에 지친 가족들을 두고 마음 아파서 도저히 발걸음을 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곳에서 건우를 기다리고 있어요.”

눈물마저 말라버린 실종자 가족들의 임시 보금자리인도 팽목항.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중인 20대 아가씨가 13일째 홀로 실종자 가족을 조용히 위안하며 지내고 있다.

용미연(24)씨는 지난날 16일 TV에서 눈물 흘리며 애대위하는 실종자 가족들을 본 뒤 서울에서 팽목항으로 내려와 안산 단원고 2학년 김건우 군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광주에서 태어나 여수에서 대학을 마친 뒤 부모와 함께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용씨는 이런 큰 사고가 고향 인근에서 벌어져 놀라움과 함께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없을까 고민하던 중 인터넷에서 진도 봉사활동자 모집글을 보고 한 걸음에 진도로 내려왔다.

자원봉사자로 일하게 된 용씨는 50명 정도 머물 수 있는 실종자 가족 임시 텐트 안에 들어갔다 건우네 가족을 만났다. 용씨는 “처음엔 건우네 가족도 실종자 가족중의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배식이며, 잔심부름을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할머니와 건우 부모님께서 수고한다며 오히려 저를 배려해 주셨고, 이런 저런 속내를 나누면서 이 가족을 떠날 수가 없게 됐어요. 친 엄마처럼 할머니처럼 정이 너무 들어요...”라며 “봉사하러 오신 분들도 많은데

이 가족, 저 가족 다 돌보는 것 보다 저라도 꾸준히 한 가족을 중심으로 도와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레 건우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어요”

건우네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용씨에게 건우가 더이상 단순히 ‘실종된 단원고 학생’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내 동생 건우’가 돼 버렸다.

용씨는 임시 텐트 안에서 건우네 가족과 숙식을 함께 하며 함께 울고 기도하며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 식사 시간엔 음식이 식을까 봐 건우네 가족들에게 가져다 준다. 식사를 거르기 일쑤인 건우네 가족들을 설득해 식사를 마치게 한 후에는 천막에 모여 아직 돌아오지 않은 동

TV로 사고현장 접한뒤 서울서 내려와 13일째 체류 실종자 가족과 숙식 함께하며 식사 챙기고 아픔 나눠

“처음엔 눈물 닦아 드렸지만 지금은 가족되어 귀환 기도”

생, 건우에 대한 얘기를 나눈다.

처음엔 ‘건우야, 돌아와’라고 기도하는 건우 부모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위로했지만 이젠 그들을 위로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과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다. “건우야, 한 번도 본 적 없는 내 동생 건우야! 어서 빨리 누나랑 엄마가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와줘”

아삭한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건우네 가족들 건강이 염려된다는 용씨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내 동생이 된 건우가 가족들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보고 팽목항을 떠나겠다”며 오늘도 가족들과 함께 건우의 귀환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국내 주요 대형 인재사고 일지

1993년

서해 웨리호 침몰

- 1 일시: 1993년 10월 10일 오전 10시경
- 2 내용: 전북 부안군 위도 앞 북서쪽 3km 해상서 웨리호 침몰
- 3 피해: 사망 292명
- 4 원인: 강풍과 높은 파고 등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탐승 정원 초과해 출항

1994년

성수대교 붕괴

- 1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40분경
- 2 성수대교 경간 중앙부분 48m 추락
- 3 사망 32명, 부상 17명
- 4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 단계 부실 복합요인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 1 1995년 6월 29일 오후 6시경
- 2 삼풍백화점 한동점 붕괴
- 3 사망 502명, 실종 6명, 부상 937명
- 4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총체적 부실

1995년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 1 1995년 4월 28일 오전 7시 50분경
- 2 대구지하철 1호선에서 도시가스 폭발
- 3 사망 101명, 부상 117명, 재산피해 600억원
- 4 인공 백화점 신축공사 천공작업중 파손된 공사장 가스관으로부터 새어나온 가스가 지하철로 유입돼 폭발

2014년 세월호 침몰

- 1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49분 좌현부터 침몰 시작
- 2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해상에서 6천825톤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 침몰
- 3 사망 213명, 실종 89명 (5월 1일 현재)
- 4 침몰 원인 규명 중.

(초기 대응 미흡과 구조·수습 과정에서 대형 재난에 대한 대책 미비, 위기관리 능력 부재 등을 지적받고 있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칙 제 131226-중-52297호

老안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보유 부동산 매각 공고

- 광주 동구 대인동 308-1, 2층상가 (대지 101.8㎡, 건물 145.4㎡)
- 광주 북구 북동 56-2 플럼빌리지(원룸) 5건 (각 호당 26.64㎡)
- 광주 동구 충장로2가 18 갤러리존 지하1층 상가 13호, 31호 (건물 38.1㎡, 건물 196.4㎡)
- 광주 남구 봉선동 85-3전, 산 61-2 임야(17,203㎡)
- 전남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 412, 412-2, 412-4 주유소, 휴게소, 모텔(대지 9,142㎡ 건물 774.9㎡)

상담 후 가격 결정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062-361-3515)로 문의바랍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건축설계현상공모

광주동명교회에서는 본당 증축과 관련하여 건축설계공모에 대하여 설계업체 참여도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건 명: 광주동명교회 본당 건물 증축 및 현 건물 리모델링 설계 공모
- 일 시: 2014년 5월 23일(금) 14:00
- 장 소: 광주동명교회 101교실
- 참석대상: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교회 건축 유경험자로 현장 설명회에 참여한 자 또는 업체
- 오시는 길: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20번길 31 (동명동 6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동명교회

전화 062)232-1757